



CEGB, 第2의 PWR建設을 申請

英國中央電力廳(CEGB)은 8월 27일 퍼킨슨 에너지相에 대해 Hinkley Point에 120만KW의 PWR 건설 요구를 정식으로 신청했다. 영국의 輕水爐 건설로서는 금년 3월 12일에 정식 승인받고 현재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SizewellB발전소(PWR, 120만KW)에 계속되는 것이며, 1990년 건설개시, 1998년 운전개시를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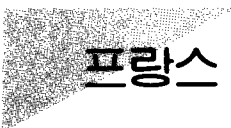
Hinkley Point에 계획되고 있는 PWR은 Sizewell과 같이 웨스팅하우스(WH)社製 PWR이며, 사이트 선정에 대해서는 수년전에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同 사이트에서는 Hinkley Point A(GCR, 50만KW)와 同B(AGR 120만 2,000KW)가 현재 운전을 계속 중이고 각각 1990년대 중반, 2000년경의 폐쇄가 예정되어 있다.

CEGB는 Hinkley Point PWR계획에 대해서 '90년의 착공을 희망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먼저

공청회라는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는 견해에 관계자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금년에 겨우 건설허가를 얻은 SizewellB계획에 관해 보면, 1983년에 시작된 공청회는 同國의 공청회 기록을 깨고 2년 이상을 요했다. 또 검토 작업도 당초 예정을 1년이나 초과하는 등 공청회 시스템이 발전소계획의 넥크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 일부 관계자로 부터는 공청회시스템의 변경을 요구하는 소리도 나왔다.

이번의 Hinkley Point PWR건설계획에 대해서도 이미 그 지방이나 同國의 환경보호단체에서 계획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점에서 SizewellB의 전철을 밟을 것을 걱정하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의 진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佛原子力企業 3社, 美 B&W와 合併會社 設立

COGEMA(佛核燃公社), 프라마툼, 우라늄·페시네 등 프랑스 원자력기업 3사와 美原子爐에 이커인 B&W社는 8월말 미국내의 PWR연료 및 관련서비스에서의 합병회사설립에 합의했다. 新會社 설립에 즈음해서 COGEMA 40%, 프라마툼 40%, 우라늄·페시네 20% 출자의 미국회사가 우선 설립되고, 이어서 同社 49%, B&W 51% 출자의 합병회사가 설립된다.

미국시장에의 진출을 엿보고 있던 프라마툼社는 최근 수년 미국측의 파트너를 계속 찾고 있었다. 웨스팅하우스(WH)社와의 사이에서는 작년 일찍 증기발생기 튜브의 솟·피닝 등 한정된 분야에서는 합병사업을 시작하고 있었지만, 사업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한편 B&W社도 연료사이클 전체에서의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한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